

상처 난 구멍으로 무엇을 볼까?

Hope is being able to see that there is light despite all of the darkness.
(Desmond Tutu)
희망은 사방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빛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 (데스몬드 투투)

얼마 전 가산디지털단지에서 사업을 하는 후배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대형 의류 판매장이 있는 빌딩에 있는 규모가 큰 식당이었습니다. 수저 받침대에 쓰여 있는 시 한 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생진 시인의 <벌레 먹은 나뭇잎>입니다.

함께 자리한 후배의 삶도, 나의 삶도 벌레 먹은 나뭇잎과 닮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는... 그러나, 후배는 지금 사업적으로 많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구가 마음에 들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니, 후배도 자신의 스마트 폰 속에 이 시를 담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건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가진 상처 난 구멍을 알기에...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 희망을 보고 있다는 것도...

상처가 별처럼 아름답다는 것도….

벌레 먹은 나뭇잎

-이생진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이 잘못된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여 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